

인지전 개념과 군(軍) 정훈병과의 역할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박영진* · 박동휘**

• 요 약 •

본 연구는 최근 전쟁의 수행전략 중 하이브리드전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는 인지전 개념 속에 군 정훈병과의 역할과 수행영역을 시론적 수준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인지전은 새로운 전쟁의 한 양식으로 인간의 의지와 행동양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군의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정훈병과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개념적 논의와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동안 포털에서 논의된 인지전 개념을 텍스트마이닝하여 일정한 범주로 분류한 후,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을 통해 인지전 개념 속 정훈병과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로서 본 연구는 정훈병과가 인지전 수행을 위하여 외부로는 공보작전을 통해 오·허위·유해정보 대응으로 합동작전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내부로는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리터러시 함양으로 분별력과 통찰력을 제고해야 함을 도출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인지전의 개념 속 정훈병과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명료화 및 정교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주제어 : 인지전, 정훈, 공보작전, 정신전력, 디지털 리터러시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문제의 제기

‘개념 잡기’는 매우 까다로운 지적(知的) 과제 중 하나이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그

* '25년 육군대학 소령지휘참모과정 학생장교 : 제1저자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 그 현상을 설명할 적절한 개념과 이론적 틀(Frame)이 필요하다. 또한, 그 현상이 개인과 소속집단에 어떻게 관련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비록 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거나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 하더라도, 이를 구체화하고 윤곽을 잡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향후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전쟁의 전략적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전(Hybrid warfare)의 수행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 개념을 고찰하고, 정훈병과의 수행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최근 분쟁과 전쟁에서 인지전 개념은 심리전, 사이버전 등과 같이 비물리적 전쟁 양상의 하나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2년 러-우 전쟁과 2023년 이-하 전쟁에서 핵심 요소로 떠오르며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지전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인간의 마음을 전장으로 삼아, 상대의 인지 과정을 조작하여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¹⁾”을 전제로 한다.

NATO에서 발표한 연구결과²⁾에 따르면, 인지 영역에서의 분쟁은 무형(無形), 무성(無聲), 무한(無限)의 특성을 가지며, 전·평시 군사·비군사적 행동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모든 전장 공간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전장(Hyper-Connected Battlefield)’인 미래전에서, 물리적 충돌은 감소하는 반면, 소셜미디어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인지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인지전의 개념연구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군사적 적용 방법(Methods)에 있어서는 명확한 합의가 부재한 채로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러-우 전쟁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실시간대로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점점 고조되는 현실에서 ‘개념 정립’과 ‘수행방안 도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전쟁을 구현하는 방식, 즉 ‘전(Warfare)’의 형태로서 인지전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하이브리드전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대한민국 육군이 명시된 적(敵) 북한뿐 아니라 가상·잠재의 적을 맞아 “How to fight”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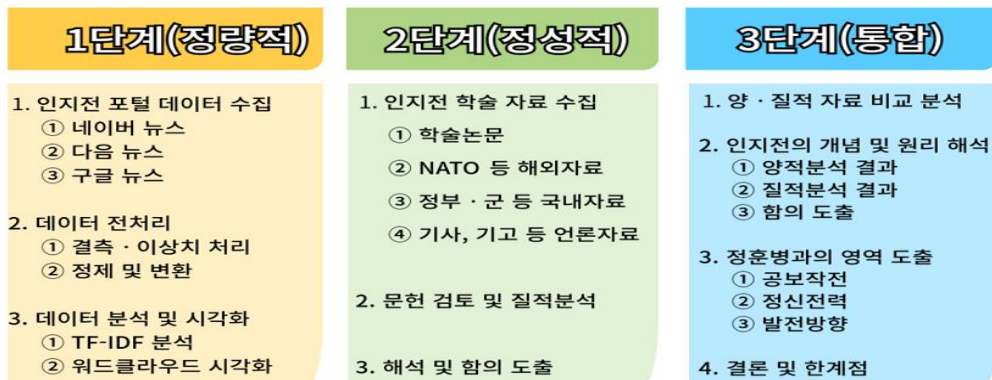
인지전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의 특성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급부상한 인지전에 대한 논의와 학문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간대로 일어나는 전쟁과 인지전의 공격방식이 먼저 식별되고 관찰됨으로써, 이를 분석하고 역(逆)으

1) Claverie, Bernard, and François Du Cluzel. “The Cognitive Warfare Concept.” Innovation Hub Sponsored by NATO 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2 (2022).

2) Cao, Kathy, et al. “Countering cognitive warfare: awareness and resilience.” NATO Review 20 (2021).

로 수행개념과 원리를 추적하여 개념 형성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정신전력 부문의 연구 또한 인지전의 개념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정훈병과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의미 있는 연구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 연구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축적된 현시점에서, 선행연구를 종합하고 동시에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념과 세부 수행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는 ‘인지전의 범주 속에 정훈병과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 인지전이 ‘정신(精神)’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 역할을 담당하는 정훈병과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인지전과 정훈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 인지전의 여러 유사 개념 중 정훈병과와 관련된 부분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발전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고, 이론적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된 현시점에서, 기존의 축적된 연구결과와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귀납적(歸納的) 방식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고자 한다. 이후에는 이론과 원리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는 연역적(演繹的) 방식을 병행하여 인지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정훈병과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 출처: 연구의 수행절차를 저자 작성 및 도식화

〈그림 1〉 연구의 수행절차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인지전 관련 포털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지전에 대한 학계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정훈병과의 발전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3대 포털(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인지전과 관련한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흐름을 고찰하고, 둘째, 인지전에 대한 선행연구 및 학술자료를 수집 후 질적 분석을 수행하며, 끝으로 양·질적자료를 통합·분석하는 삼각검증방법(Triangulation methods)³⁾을 실시한다.

먼저 양적 분석에 있어 ‘네이버’와 ‘다음’은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인지전” 키워드를 바탕으로 2022년⁴⁾부터 연구를 진행한 시점인 2024년 8월 30일까지 언론보도를 수집했다. 구글은 동(同)기간 “Cognitive warfare” 키워드를 활용했다.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에는 “인지전”, “Cognitive warfare” 관련, 포털에서 다루는 주요 키워드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단어빈도(TF)와 역문서빈도(IDF,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조합한 TF-IDF값⁵⁾을 분석했고, 이에 <Python>과 <TEXTOM>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표 1〉 분석데이터 정보

Quantitative data				Qualitative data			
구분	내 용	수량	기간	구분	내용	수량	기간
네이버	보도 기사	961	'22.1.1.~ '24.8.30.	RISS	국내 학술논문	28	'22.1.1.~'24.8.30.
다음		464			정신전력 논문	3	'22.1.1.~'24.8.30.
구글		447		구글	해외자료	21	'17.1.1.~'24.8.30.

* 출처: 분석데이터 정보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질적 분석에서는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정신전력연구지를 포함하여 국내외 학술논문과 NATO의 보고서, 해외자료 및 정부·군 세미나 자료,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수집했다. 이후, 선행연구의 흐름을 정리하여 인지전에 대한 연구동향과 현재 단계를 분석했다. 인지전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학술지에 출간된 31건의 논문 중

3) 삼각검증방법은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이라고도 하며, “양·질적 접근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여 두 접근의 결과를 통합해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단일방법론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Creswell JW, Tashakkori A. Differing perspectives on mixed methods research. Sage Publications Sage CA: Los Angeles, CA; 2007.).

4) 데이터 표집을 2022년부터 시작한 이유는 간이 데이터틀 이용한 예비조사(preliminary research)결과 “인지전” 키워드로 2020~2021년에 보도된 기사가 총 21건(네이버 18건, 다음 3건)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 TF-IDF값은 단순한 단어 빈도분석보다 더 정교한 방법으로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어휘빈도(TF)와 다른 문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역빈도(IDF)의 곱을 통해 핵심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윤태일·이수안, 『파이썬으로 텍스트 분석하기』, pp.173-178.

‘정신전력’ 분야에서 인지전에 대해 다룬 논문은 총 3건⁶⁾에 불과했지만, 인지전 연구의 흐름 속에서 정신전력 분야의 논문도 함께 고찰하고자 했다.

II. 인지전의 개념에 대한 데이터 분석

1. 인지전의 개념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가. 국내 포털(네이버·다음)의 “인지전” 키워드 분석결과

	네이버			다음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대만	512	11	연습	211
	2	중국	379	12	안보	209
	3	북한	307	13	공격	207
	4	전쟁	280	14	우크라이나	200
	5	정보	249	15	러시아	194
	6	가짜	238	16	위협	192
	7	사이버	236	17	작전	191
	8	뉴스	232	18	심리전	187
	9	군사	229	19	틱톡	182
	10	인지	216	20	하마스	177

* 출처: 저자 작성 및 도식화

〈그림 2〉 네이버·다음 포털의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값 분석

2022~2024년간 보도된 네이버와 다음 포털의 뉴스 기사 중 “인지전” 키워드로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위 〈그림 2〉와 같다. 보도건수는 총 1,425건으로 네이버(961건)가 다음(464건)보다 약 두 배 더 많은 보도량을 기록했다. 인지전 관련 TF-IDF 값이 높은 상위 1~20위까지 분석한 결과 “국가”나 “조직(단체)”를 의미하는 대만(1위), 중국(2위), 북한(3위), 우크라이나(14위), 러시아(15위), 하마스(20위)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군사 관련 용어로는 전쟁(4위), 군사(9위), 연습(11위), 안보(12위), 공격(13위), 위협

6) 장용(2023), “인지전 수행관점에서 본 한국군 정신전력 발전 방향 고찰”, 〈정신전력연구-75〉, 이종일(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장병 정신전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전력연구-75〉, 임상욱(2024), “중국군의 삼전을 통해서 본 북한군의 인지전과 대응방안”, 〈정신전력연구-77〉 등 3건이며 모두 〈정신전력 연구〉에 출간된 논문이다.

(16위), 작전(17위)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사 학술용어들로 보이는 정보(5위), 가짜(6위), 사이버(7위), 뉴스(8위), 인지(10위), 심리전(18위) 등이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19위)도 확인되었다. 특히 틱톡의 경우,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숏폼 동영상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는 이를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및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⁷⁾

나. 해외 포털(구글)의 “Cognitive warfare” 키워드 분석결과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china	203	11	strategy	60
	2	warfare	178	12	russia	59
	3	taiwan	151	13	intelligence	55
	4	israel	111	14	media	55
	5	security	93	15	threat	51
	6	president	86	16	dis information	46
	7	information	81	17	technology	42
	8	ukraine	77	18	attack	41
	9	hamas	74	19	nato	41
	10	defense	70	20	propaganda	36

* 출처: 저자 작성 및 도식화

〈그림 3〉 구글 “Cognitive warfare” 워드클라우드 및 TF-IDF 값 분석

2022~2024년간 보도된 구글 포털에서 “Cognitive warfare” 키워드로 수집된 뉴스의 데이터 분석결과와 위 〈그림 3〉과 같다. 총 447건의 보도가 있었으며, 이는 국내의 다음 포털(464건)과 유사한 수준의 보도량을 보였다. 인지전 관련 상위 1~20위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국가”나 “조직(단체)”을 나타내는 China(1위), Taiwan(3위), Israel(4위), Ukraine(8위), Hamas(9위), Russia(12위), NATO(19위)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다. 군사 관련 용어로는 Warfare(2위), Security(5위), Defense(10위), Strategy(11위), Threat(15위), Attack(18위)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유사 학술용어로는 Information(7위), Intelligence(13위), Disinformation(16위), Propaganda(20위) 등이 분석되었다. 아울러,

7) Maheshwari, S., & Holpuch, A. (2024, June 20). “Why the U.S. Is Forcing TikTok to Be Sold or Banned.”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article/tiktok-ban.html> (검색일: 2025.8.21).

인지전의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Media(14위), Technology(17위) 등의 키워드 또한 주요하게 나타났다.

국내 네이버·다음 포털과 해외 구글 포털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 관련 언론 보도에 추출된 명사들을 다시 ‘주제어’로 재분류하여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주제 1은 ‘국가(조직)’, 주제 2는 ‘군사용어’, 주제 3은 ‘학술용어’로 분류하였으며, 특정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명사는 주제 4인 ‘기타’에 포함하였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포털 데이터 추출 명사에 대한 주제별 분석

구분	주제어	네이버·다음	구분	주제어	구글
1	국가 (조직)	대만, 중국, 북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1	국가 (조직)	China, Taiwan, Israel, Ukraine, Hammas, Russia, NATO
2	군사 용어	전쟁, 군사, 연습, 안보, 공격, 위협, 작전	2	군사 용어	warfare, security, defense, strategy, threat, attack
3	학술 용어	가짜, 뉴스, 정보, 사이버, 인지, 심리전	3	학술 용어	information, intelligence, disinformation, propaganda
4	기타	틱톡	4	기타	president, media, technology

* 출처: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인지전에 관한 언론 보도의 명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조직)’ 주제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 포털의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였다. ‘대만’과 ‘중국’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두 국가 모두 모두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다. 이 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마스’ 등의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포털에서는 ‘북한’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지만, 해외에서는 ‘이스라엘(Israel)’과 ‘나토(NATO)’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둘째, ‘군사 관련 용어’에서는 ‘전쟁(War)’, ‘전(Warfare)’, ‘안보(Security)’, ‘위협(Threat)’, ‘공격(Attack)’ 등의 용어가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셋째, ‘학술 관련 용어’ 분석에서는 ‘정보(Information, Intelligence)’가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가짜’와 ‘뉴스’의 경우 합성어로 ‘가짜뉴스(Fake news)’를 의미하는데, 이는 국내에서 허위정보를 의미하는 ‘Disinformation’으로도 통용되는 용어이기에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⁸⁾ 또한, 해외 포털에서 등장한 ‘선전

8) 실제로 유네스코(UNESCO)에서는 ‘가짜뉴스’ 용어가 저널리즘의 원칙을 훼손하므로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Ireton, C., & Posetti, J. (Eds.). (2018). Journalism, fake news

(Propaganda)’ 역시 심리전의 유사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용어의 해석은 본 연구 후반부의 질적 분석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문에서는 인지전의 수단으로 보이는 ‘틱톡’과 ‘Media’, ‘Technology’ 등도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Ⅲ. 인지전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인지전의 등장 배경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의 방법론인 삼각검증방법의 절차에 따라, 인지전 개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질적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적 접근을 위해, 빈도분석의 TF-IDF값을 통해 도출된 인지전의 주요 키워드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담론들로 연결되어 나타나는지 이론 고찰과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지전은 ‘인지(認知)’와 ‘전(戰)’의 합성어로, 먼저 인지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을 의미한다. 한편, ‘전(戰)’은 ‘싸움 전’자로서, 국제정치학과 군사학계에서는 ‘전쟁(戰爭)’의 하위개념으로 ‘전’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전쟁의 개념을 정의할 때, 보편적으로 클라우제비츠(Car von Clausewitz)의 “전쟁(War)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란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면, ‘전(Warfare)’은 정치적 목적과는 별개로 단순히 ‘싸움의 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전의 형태는 유격전, 분란전, 네트워크 중심전, 정보전 등 다양하다.⁹⁾ 즉,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인지전’ 개념은 인간의 학습원리와 행동영역과 관련된 ‘두뇌’와 ‘정신’의 인지기능에서 벌어지는 전쟁 양상의 하나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인지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의 심리전, 여론전, 정보전, 정보작전 등과의 개념적 유사성과 위상 정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¹⁰⁾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인간의 의지와 행동영역에 관여하는 전쟁 방식이 과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본질적 의문이다.

& disinformation: Handbook for journalism education and training. UNESCO).

9) 박창희(2018),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p.59.

10) 이준왕(2023),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인지전 수행 방안. 미래연구, 8(2), 115-139.

그 해답은 바로 전쟁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동·서양의 저명한 군사사사가 손자와 클라우제비츠의 견해를 살펴보면,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용병”이라는 ‘부전승(不戰勝)’ 사상을 하나의 이상향으로 제시했다.¹¹⁾ 반면, 클라우제비츠는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¹²⁾”라는 ‘결전 추구(決戰 追求)’의 사상을 강조하였다. 이 두 사상은 모두 전쟁에서 인간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 혹은 이를 실현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일련의 ‘행동’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인지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 의지와 행동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인지전 개념이 왜 21세기에 부상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이 ‘문명’의 발전과 밀접하게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문명은 일종의 ‘삼쌍둥이’와 같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¹³⁾ 역사적으로 인간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대의 최첨단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최고수준 지식과 지혜 등 문명의 정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왔다. 고대에는 인간 생활을 위해 제작된 각종 도구가 집단 간 경쟁과 분쟁에서 적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로 진화하였고, 중세에는 ‘말(馬)’이 기병으로 전장의 핵심을 이루기도 했다. 이러한 인간의 근력을 기반으로 한 전투방식은 13세기 이후 화약무기의 도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이는 현대까지도 활용하고 있다. 이후, 18세기 산업혁명과 대량생산체제가 도래하면서 전쟁은 기계화의 시대로 전환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핵무기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듀 푸이(T.N. Dupuy)는 이러한 전쟁의 변화를 ‘근육의 시대’, ‘화약의 시대’, 그리고 ‘기술의 변화’ 시대로 구분하기도 했다.¹⁴⁾

따라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진보하면서, 사이버 공간과 인간 의지 영역이 결합한 ‘인지전’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맞물리며 하나의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형태의 ‘전(戰)’은 계속 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래전에서는 적의 전략적 중심(Strategic Center of gravity)을 파악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 인지전의 개념 및 유사용어와의 검토

인지전에 대한 논의는 학자 및 국가별로 합의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하게 제시

11) 박창희(2023), 『손자병법』, 플래넷미디어, p.128.

12) 군사학연구회(2018), 『전쟁론』, 플래넷미디어, p.28.

13) 허남성(2015), 『문명과 전쟁』, 플래넷미디어, p.27.

14) Trevor N. Dupuy, The Evoloution of Weapons and Warfare(Fairfax: De Capo, 1984)

되고 있지만, NATO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¹⁵⁾ NATO(2021)는 인지전을 “인간의 마음을 전장으로 삼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전쟁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⁶⁾ 또한 인지전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사이버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범위는 단순한 정보의 조작을 넘어 한층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⁷⁾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은 선전(Propaganda)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사 및 정보기관(CIA 등)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으로, 주로 적군, 지도자, 요원 등의 군사적 전복 활동에 중점을 둔다. 반면에 ‘인지전’은 주로 민간의 사회구조와 정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심리전과 개념적 차이가 있다¹⁸⁾. ‘전자전(Electronic warfare)’은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적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는 군사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사이버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전(Cyber warfare)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의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등에 침입하여 파괴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등 다양한 폭력적 활동”을 포함한다(Bernal et. al. 2020, pp.6-8). 사이버전과 인지전은 소셜 미디어의 활용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확산시키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반면, 후자는 허위정보 또는 악의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은 인지전과 가장 관련이 깊고(Bernal et. al. 2020, pp. 8-10), 두 개념은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 먼저 ‘정보전’과 ‘정보작전’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수행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 함참에 의하면, 정보전(IW)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기, 분쟁 또는 전쟁 시 특정 적에 대해 정보작전이 수행되는 실제적 활동이다. 반면, 정보작전(IO)은 전시 및 평시에 정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통합하여 아군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방어하고, 적군의 정보 및 정보체계에 공격을 가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작전이다.¹⁹⁾ 현대 및 미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정

15) 김진호, & 최영찬(2023).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 인지전 발전 방향: 인지전 개념, 전개 양상, 그리고 전략적 대응. 국방정책연구, 141, 93-132.

16) NATO(2021, May 20). Countering cognitive warfare: Awareness and resilience. (URL: <https://www.nato.int/docu/review/articles/2021/05/20/countering-cognitive-warfare-awareness-and-resilience/index.html>) (검색일: 2025.8.21).

17) Claverie, B., & Du Cluzel, F. (2022). The Cognitive Warfare Concept. Innovation Hub Sponsored by NATO 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2.

18) Bernal, Alonso, et al.(2020). *Cognitive Warfare: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p.2-6.

19) 김규철(2022),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정보전 활동, 슬라브 연구, 38(4), 29-60.

보전은 정보통신 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왔다. 美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는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심리전을 추가하여 지휘통제전(Command and control warfare)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이후 소말리아전 등 여러 전투에서 민사작전과 공보작전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면서 1997년에 정보작전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²⁰⁾ 정보작전과 인지전의 주요한 차이점은 전자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개인과 집단이 제공된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르다.

〈표 3〉 인지전 관련 유사용어와의 검토

구분	인지전	심리전	사이버전	정보전	정보작전
목표	인간 인지과정 변화	군사적 전복 활동	국가의 자산 피해	특정 시기 정보 우위 활동	전·평시 정보 우위 활동
수단	사이버 공간	온·오프라인	사이버 공간	군사·비군사적 수단	
방법	허위정보	선전	사이버 공격	전자, 심리, 민사, 공보 등	
대상	국민, 군인, 국제사회 등	적군, 지도자, 요원 등	정치·사회·경제 제반 자산	리더십, 군사·민간 기반구조, 무기체계 등	

* 출처: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지전은 인간의 인지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디어와 같은 사이버 도구(Cyber tools)를 활용하여 정신적 편향(Bias)이나 사고의 패턴을 악용함으로써 적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전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인지전은 정보 그 자체를 넘어, 개별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직접 관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사개념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전을 ‘인간의 인지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이버, 심리, 정보전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전의 형태’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3. 인지전 주요 사례

이번 절에서는 인지전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가 또는 조직의 세부 사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0) 두석주 외(2017), 『미래전과 정보작전』, 황금소나무, pp.75.-76.

가. 중국-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다양한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마오쩌둥의 중국혁명 전쟁은 군사적으로 우세한 국민당 군대에 맞서 정치·사회적 전략을 구사하여 결국 승리한 사례로, 오늘날 제4세대 전쟁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²¹⁾.

임상옥(2024)의 연구²²⁾에 따르면, 중국의 ‘초한전’이 국가전략 차원의 개념이라면 ‘삼전(三戰)’은 군사적 차원의 인지전 수행이라 정의하고 있다. 삼전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여론전(輿論戰: Media public opinion warfare)은 미디어를 활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상대국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심리전(心理戰: Psychological warfare)은 적국의 병력과 지도자에게 두려움과 충격을 주어 혼란을 조성하고 사기를 저하함으로써 군사활동을 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법률전(法律戰: Legal warfare)은 국내·외 각종 법적 장치와 규범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적에게는 제한을 가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러한 ‘삼전’ 개념을 바탕으로 대만과의 양안관계(兩岸關係)에서 적극적으로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다. 대만의 주요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미디어를 통한 심리전과 군사력 과시를 통한 영토 분쟁 우위 확보, 그리고 법률전을 통한 정당성 확보 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나. 러시아-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인지전은 ‘재귀통제(Reflexive control)’라는 오랜 정보전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러시아는 정보와 심리전의 특성을 결합한 방식인, 이른바 “인지전(kognitivnaia voina)” 또는 “의식전(konstsiental'naia voina)”을 구사한다.²³⁾ 이러한 방식은 전·평시를 구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된다. 재귀통제 개념은 “상대방이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적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비정규전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구사했던 전통적인 심리전 및 프로파간다를 기반으로, 20여 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얻은 교훈들을 종합하여 2013~14년

21) 박창희(2018),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p.578.

22) 임상옥(2024). 중국군의 ‘삼전(三戰)’을 통해서 본 북한군의 인지전과 대응방안. 정신전력연구, (77), 191-227.

23) 이정하(2022). 러시아 연방의 정보-심리작전과 재귀통제. 서양사연구, 66, 141-170.

에 이러한 독트린을 완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⁴⁾.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2016년과 2020년 美 대선개입, 2016년 英 브렉시트 선거 개입, 그리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²⁵⁾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영향력 공작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신속·정확·충분한 전황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²⁶⁾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국민의 전쟁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정의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내러티브를 구사하며, 3년 이상 장기적인 항전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전쟁이 2025년부터는 휴전과 협상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다.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즉각적인 반격을 시행하면서 촉발되었다. 전쟁의 근본적인 배경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오랜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복잡한 역사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군사적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하마스는 전면전을 피하고 하이브리드전 방식을 채택하였다.²⁷⁾

이 전쟁을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맥락이 복잡하고, 본 논문의 주제와도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인지전 개념에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일종의 ‘내러티브’ 충돌로 해석될 수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부각시키며, 그들의 저항을 무차별 폭력에 대응하는 ‘약자의 저항’이자 ‘정의의 전쟁’으로 선전했다. 하마스는 이를 위해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며, 이스라엘을 ‘학살자’로 규정하는 전략적 내러티브를 전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반전 및 반정부 여론을 억누르고, 하마스의 인지전에 맞서기 위한 공세적인 전략적 소통을 펼쳤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변인 부대(Spokesperson's Unit)²⁸⁾는 전투 현장에서 하마스의 가짜뉴스에 실시간대로 대응할

24) 윤민우 & 김은영(2023). 『모든 전쟁: 인지전, 정보전, 사이버전 그리고 미래전에 관한 전략 이야기』.

25) 송태은(2019). 사이버 심리전의 프로퍼갠더 기술과 권위주의 레짐의 샤프파워: 러시아의 심리전과 서구 민주주의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59(2), 161-203.

26) 이종일(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장병 정신전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인지전 차원의 북한 대남적화전력 대응을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75), 285-319.

27) 지효근(202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 24(1), 153-194.

28) 이스라엘군의 대변인 부대(Spokesperson's Unit)는 전투 현장에서 하마스의 가짜뉴스에 실시간 대응할 수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즉각 보도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무자비한 침략자’이자 ‘거짓말쟁이’라는 역내러티브를 확립하며 여론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효과적 대응에 따라, 전쟁은 조기 종결하고자 했던 하마스의 초기 의도와 달리,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피의 보복’으로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다.

라. 북한

북한은 언론의 기능을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고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북한에서 언론은 정치사회화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²⁹⁾ 북한은 정권 수립 직후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대남 선전·선동을 지속해 왔으며, 2022년 이후에는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무차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³⁰⁾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의 내용은 흑색선전, 유언비어, 진상 은폐, 역사 날조 등으로 전형적인 허위·조작정보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이다. 대표적인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로는 2009년 7월 7일 한국과 미국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자행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Dos)’과 2013년 3월 20일 한국의 주요 방송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2023년 11월 29일 SKidSec 해커그룹에 의한 대한민국 프린터 해킹공격이 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며, 최신 기술 연구를 통해 사이버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간접적인 위협으로 ‘유튜브’ 채널을 새로운 선전·선동 및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³¹⁾ 북한이 운영하는 채널의 ‘유미’, ‘송아’ 등의 캐릭터는 북한의 변화된 홍보전략을 반영한다.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독립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채널들이 총정치국이나 선전선동부가 개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은 국방목표³²⁾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이버

있는 증거를 찾아 방송하며, 구성원은 단독군장을 착용한 리포터, 카메라맨 등의 소규모 편성으로 활동한다(출처: 조선일보 조상근 칼럼(2023.11.20.), “이스라엘군의 대변인 부대: 하마스의 가짜뉴스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현장증거를 추적하다” (검색일: 2025.7.15).

29) 국립통일교육원(2023), 『북한 이해』, p.303.

30) 권지민, 박영진, & 박동휘(2024). 북한의 허위·조작정보와 대응방안 연구. 통일연구, 28(1), 5-50.

31) 윤민우(2024). “북한의 인지전으로서 유튜브 사이버 프로파간다 내러티브 분석: 내러티브 구성적 접근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한국범죄심리연구 20(1), 51-68.

32) 국방부(2023), 『2022 국방백서』, p.39.

공격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비전 2050³³⁾에서는 미래전 환경을 평가하며 ‘인지’ 영역의 확장을 강조하고, 미래전 전망에서 하이브리드전과 북한의 사이버·전자기전을 비롯한 비대칭 수단에 대한 경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전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적(敵) 북한의 직·간접적인 사이버 공격, 프로파간다,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위협에 대해 그 유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정훈병과의 공보작전과 정신전력 발전방향



* 출처: 저자 작성 및 도식화

〈그림 4〉 인지전 수행을 위한 정훈병과의 대응 모델

〈그림 4〉는 인지전 수행을 위한 정훈병과의 대응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정훈병과는 외부적(External)으로는 공보작전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적시적이고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며, 내러티브 형성을 통해 전략적 차원에서 합동작전(Joint operations)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내부적(Internal)으로는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여 군의 싸워 이길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투사해야 할 것이다.

1. 공보작전

이론적 고찰과 사례검증에 따르면 현대 전쟁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전’의 부상으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전쟁에서는 ‘비정규전’에 해당하는 ‘인지전’이 부각되고 있으며, 인지전 수행방식은 정보전, 심리전, 사이버전 등 다양한

33) 국방부(2022), 『국방비전 2050』, pp.16-20.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에 ‘정보전’은 인지전과 가장 밀접한 개념으로, 미군과 한국군은 정보영역에서 정보우세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보작전’이란 개념을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개념 중 ‘정훈병과의 수행영역인 공보작전은 어느 범주에 속할까?’ 美 합동작전 교범³⁴⁾에 따르면, 공보작전(Public affairs operations)은 정보작전(IO)과 역량을 통합하여 ‘합동작전’ 측면에서 지휘관의 작전목표를 지원하고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공보는 내·외부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적의 허위 정보(Disinformation)와 오정보(Misinformation)에 대응함으로써 군사 목표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美 정보작전(IO) 교범³⁵⁾에서도 공보는 정보관련역량(IRCS, Information-related capabilities)에 포함되며, 정보작전은 “IRCs를 통합하여 정보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고, 敵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我는 보호하는 통합적 합동작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군의 교리에도 공보는 합동작전의 측면에서 ‘정보작전관련능력’ 범주에 ‘공보작전’이라는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가용한 공보수단을 활용하여 군 구성원과 군내·외 대중들에게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전 수행관점에서 공보작전은 정보작전의 범주 안에서 그 기능과 수행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인지전과 정보작전의 범주에서 공보작전의 영역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 출처: Hung, T. C., & Hung, T. W. (2022)³⁶⁾, p.3의 표를 저자가 수정·보완하여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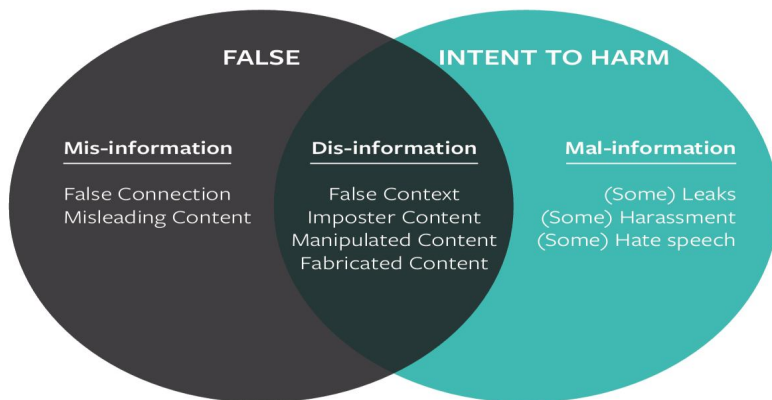
〈그림 5〉 인지전 개념 속 공보작전의 영역

34) JCS (Joint Chiefs of Staff). (2011). “Joint Operations.” Joint Publication 3-0,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Chapter III.

35) JCS (Joint Chiefs of Staff). (2014). “Information Operations.” Joint Publication 3-13,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Chapter II~IV.

36) Hung, T. C., & Hung, T. W. (2022). How China's cognitive warfare works: A frontline perspective of Taiwan's anti-disinformation wars.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7(4), ogac016. pp.2-7.

군에서 공보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한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며, 현대 디지털 매체의 핵심인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도 그 주요 영역에 속한다. 인지전 수행개념에서 적의 사결정체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유포되고 확산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은 주로 디지털 기술인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며 정보의 파급력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진다. 유네스코에서는 이 현상을 ‘정보의 무질서(Information disorder)’로 규정하며 ‘가짜뉴스’ 대신 <그림 6>과 같은 용어들을 개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출처: UNESCO(2018)³⁷⁾, p.46의 인용

<그림 6> Information Disorder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정보 무질서’ 현상은 오(Mis)정보, 허위(Dis)정보, 유해(Mal)정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첫째, 오정보는 속성 자체는 거짓이지만, 유포하는 사람은 진실이라고 믿는 정보다. 둘째, 허위정보는 그 자체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유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악의적인 정보를 말한다. 셋째, 유해정보는 실제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특정 사람, 조직, 혹은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오정보가 악의가 없지만, 허위정보와 유해정보는 악의를 동반한다. 특히 허위정보는 고의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 정보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행위자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보작전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인 오·허위·유해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7) UNESCO(2018),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handbook for journalism education and training』.

〈표 4〉 오(誤)·허위(虛僞)·유해(有害)정보의 개념

구분	속성	유포자	악의	목적
오정보 (Mis-information)	거짓	인지 못함	없음	거짓 연결, 호도성 콘텐츠
허위정보 (Dis-information)	거짓	인지함	있음	거짓 맥락, 사기성 콘텐츠 조작·날조 콘텐츠
유해정보 (Mal-information)	부분 사실 거짓	인지함	있음	정치적 목적의 유출 정치적 공격, 혐오

* 출처: 권지민·박영진 외의 연구(2024)³⁸⁾, p.22의 표를 저자가 수정·보완하여 작성

2. 정신전력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과 사례검증을 통해 인지전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러시아는 ‘재귀통제’를, 중국은 ‘삼전’을, 북한은 오래전부터 허위·조작정보를 활용한 ‘대남 선전·선동’ 전술을 구사해왔다. 반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지전의 주요 속성인 오·허위·유해정보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개인의 ‘자유’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나 검열, 통제는 자칫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2020년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서, 군사보안 측면에서 이전보다 다소 취약해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병사들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 동안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오·허위·유해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 또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군 내부에도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美 정보작전 교리(2014)³⁹⁾에서는 ‘정보환경’을 정보를 수집, 처리, 전파하는 개인·조직·시스템의 집합이자 모든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물리(Physical), 정보(Informational), 인지(Cognitive)적 차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중 정보·인지적 차원은 정훈병과가 담당하고 있는 정신전력과 관계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군의 디지털 환경에서 장병들은 개인 스마트폰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고, 이를 ‘인지’하여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때로는 군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과는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장병들의 “국가관과 안보

38) 권지민·박영진, & 박동휘, (2024), “북한의 허위·조작정보와 대응방안 연구”, 통일연구, 28(1), 5-50.

39) ibid. Chapter I.

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이라는 정신전력의 목표⁴⁰⁾와 배치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인지전 개념에서 살펴보면, 장병들이 “무엇을 위해,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훈병과의 정신전력 분야는 새로운 ‘미래전’의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이에 부합하는 ‘리터러시(Literacy)’ 함양이다. 리터러시란 일반적으로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소니아 리빙스톤(Sonia Livingstone)은 리터러시를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해서 분석·평가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⁴¹⁾으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뉴미디어는 정보의 수집, 활용, 변형, 생산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전통 미디어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정보의 ‘일방향(One-way)’에 머물렀다면, 디지털 미디어가 구축된 새로운 환경에서는 정보의 ‘쌍방향(Two-way)’ 소통을 전제로 한다. 이용자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벗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정보를 능동적으로 다루는 ‘참여자’와 ‘적극적 이용자’로 변모했다. 군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이후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었고, 입대 병사와 초급 간부들의 구성원 속성도 ‘디지털 세대’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1997년 『정신전력지도 지침서』에서 2025년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함양”이라는 오랜 키워드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리터러시’란 개념을 추가하여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연구자는 제안한다.

장병들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전의 주요 속성은 ‘오·허위·유해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군기, 사기, 단결, 교육훈련 등을 통해 부여된 임무를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 된 전투역량을 발휘하는데 저해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즉, 군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어하고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단언컨대 정훈병과의 ‘정신전력’ 영역이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장병 리터러시 함양’을 교육에 반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첫째는 정신전력의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교육에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콘텐츠를 추가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40) 국방부 훈령 제2127호, 정훈·문화활동 훈령(2018.2.2. 일부개정) 제2조.

41) Livingstone, S. (2004). What is media literacy?. Intermedia, 32(3), 18-20.

〈표 4〉 정신전력 교육의 리터러시 함양 방안

구 분		내 용
1안	정신전력 목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리터러시
2안	대적관(예시)	제0과 새로운 디지털 위협과 북한의 인지전 사례
	군인정신(예시)	제0과 미래형 강군을 위한 스마트한 디지털 전사의 기질

* 출처: 저자 작성

더불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군과 장병들에게 오·허위·유해정보의 개념과 그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를 팩트체크하고 내러티브를 형성하여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적 북한이 어떠한 인지 공격을 통해 대한민국 군을 선전·선동하고 있는지, 장병들이 전사로서 어떠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비판적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신전력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래전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지전에 적합한 정신전력 개념을 도입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다면, 디지털 위협에 직면한 장병들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함양하여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21세기 인포데믹(Infodemic)⁴²⁾ 시대를 맞아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인 인지전의 개념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정훈병과의 수행영역을 체계적으로 명료화함으로써 공보작전과 정신전력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마련하고자 시도한 시론적·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동안 인지전 개념에서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등 다양한 용어로 파편화되어 있던 기존의 논의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텍스트 마이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범주를 도출한 후, 질적 분석을 통해 인지전의 개념과 주요 사례, 정훈병과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했다. 선행연구에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귀납적 방식으로 인지전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한 뒤, 연역적 접근을 통해 이론과 사례검증을 결합하여 개념을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구체화하려는 혼합 연구방

42) 인포데믹(Infodemic)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나 불확실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뜻함.

법을 도입했다는 점에 있다.

연구결과, 인지전은 인간의 인지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이브리드전의 한 형태로, 심리전, 사이버전, 정보전 등 다양한 공격방식으로 나타난다. 정훈병과는 인지전 수행을 위해 외부적(External)으로는 공보작전을 통해 정보작전의 범주에서 오·허위·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올바른 팩트체크와 내러티브 형성을 통해 ‘합동작전’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내부적(Internal)으로는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전의 유사용어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훈병과만의 고유 영역을 분리하고자 시도하였으나, 現 미군과 한국군 교리에는 정보작전 내에서 공보작전을 규정하고 있어 그 범주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2015~2017년경 병과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미디어전’ 개념은 현재 지속적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 분야에서는 ‘전’과 ‘작전’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는 반면, 정훈 분야에서는 미디어전이라는 용어가 최근에는 거의 사장(死藏)된 분위기다. 인지전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이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 심화·발전시키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혼재되어 온 인지전 개념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이론적 틀로 고찰하여 주요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훈병과의 역할과 개념적 대응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신욱(2023), “인지전 개념과 한국 국방에 대한 함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139, 179-212.
- 국립통일교육원(2023),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 국방부 훈령 제2127호(2018.2.2), 「정훈·문화활동 훈령」.
- 국방부(2022), 『국방비전 2050』, 국방부(서울)
- 국방부(2023), 『2022 국방백서』, 국방부(서울)
- 군사학연구회(2018), 『전쟁론』, 플래닛미디어(서울)
- 권지민·박영진, & 박동휘(2024), “북한의 허위·조작정보와 대응방안 연구”, 『통일연구』, 28(1), 5-50.
- 김규철(2022),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정보전 활동”, 『슬라브 연구』, 38(4), 29-60.
- 김진호·최영찬(2023),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 인지전 발전 방향: 인지전 개념, 전개 양상, 그리고 전략적 대응”, 『국방정책연구』, 141, 93-132.
- 두석주 외 (2017), 『미래전과 정보작전』, 황금소나무(서울)

- 박동휘(2022), 『사이버전의 모든 것』, 플래닛미디어(서울)
- 박창희(2018),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서울)
- 박창희(2023), 『손자병법』, 플래닛미디어(서울)
- 송태은(2019), “사이버 심리전의 프로퍼갠더 전술과 권위주의 레짐의 샤프파워: 러시아의 심리전과 서구 민주주의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59(2), pp.161-203.
- 윤민우, & 김은영(2023), 『모든 전쟁: 인지전, 정보전, 사이버전 그리고 미래전에 관한 전략 이야기』, 박영사(서울).
- 윤민우(2024), “북한의 인지전으로서 유튜브 사이버 프로파간다 내러티브 분석: 내러티브 구성적 접근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한국범죄심리연구』, 20.1, pp.51-68.
- 윤태일·이수안(2019), 『파이썬으로 텍스트 분석하기』, 늘봄(서울).
- 이정하(2024), “러시아 연방의 정보-심리작전과 재귀 통제(Reflexive Control)”, 『서양사연구』, 66, pp. 141-170.
- 이종일(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장병 정신전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인지전 차원의 북한 대남적화전력 대응을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75), pp.285-319.
- 이준왕(2023),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인지전 수행 방안”, 『미래연구』, 8(2), pp.115-139.
- 임상옥(2024), “중국군의 ‘삼전(三戰)’을 통해서 본 북한군의 인지전과 대응방안”, 『정신전력연구』, (77), pp.191-227.
- 장용(2023), “인지전(認知戰) 수행관점에서 본 한국군 정신전력 발전 방향 고찰”, 『정신전력연구』, (75), pp.261-281.
- 조상근(2023.11.20.), “이스라엘군의 대변인 부대: 하마스의 가짜뉴스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현장증거를 추적하다.” 『조선일보』(온라인),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58&num=6280 (검색일: 2025.7.15).
- 지효근(202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 24(1), pp.153-194.
- 허남성(2015), 『문명과 전쟁』, 플래닛미디어(서울).
- Bernal, Alonso, et al.(2020). *Cognitive Warfare: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 Claverie, Bernard, and François Du Cluzel.(2022), “The Cognitive Warfare Concept” (Innovation Hub Sponsored by NATO 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2)
- Cao, Kathy, et al.(2021). “Countering cognitive warfare: awareness and resilience.” NATO Review 20.
- Creswell JW, Tashakkori A. Differing perspectives on mixed methods research. Sage Publications Sage CA: Los Angeles, CA; 2007.
- Dupuy, T. N.(1984). The evolution of weapons and warfare. De Capo Press.
- Hung, T. C., & Hung, T. W.(2022). “How China's cognitive warfare works: A frontline perspective of Taiwan's anti-disinformation wars.”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7(4), ogac016. pp.2-7.
- Ireton, C., & Posetti, J.(2018).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handbook for journalism education and training*. Unesco Publishing.

- JCS (Joint Chiefs of Staff).(2014). *Information Operations*. Joint Publication 3-13,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Chapter II~IV, (online), https://irp.fas.org/doddir/dod/jp3_13.pdf
- JCS (Joint Chiefs of Staff).(2011). *Joint Operations*. Joint Publication 3-0,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Chapter III. (online), <https://www.jcs.mil/doctrine/joint-doctrine-pubs/3-0-operations-series/> (검색일: 2025.8.21).
- Livingstone, S.(2004). “What is media literacy?.” *Intermedia*, 32(3), 18-20
- Maheshwari, S., & Holpuch, A.(2024, June 20). “Why the U.S. Is Forcing TikTok to Be Sold or Banned.” *The New York Times*. (online) <https://www.nytimes.com/article/tiktok-ban.html> (검색일: 2025.7.14).
- NATO(2021, May 20). Countering cognitive warfare: Awareness and resilience NATO Review. (online) <https://www.nato.int/docu/review/articles/2021/05/20/countering-cognitive-warfare-awareness-and-resilience/index.html> (검색일: 2025.7.14).

【 Abstract 】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ncept of Cognitive Warfare
and the Role of the TI&E Branch in the ROK military

Park, Yeongjin · Park, Donghui

This study offers an exploratory and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role and scope of the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I&E) Branch within the increasingly prominent concept of cognitive warfare,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ybrid warfare. Cognitive warfare, as an emerging form of conflict, aims to influence human will and behavior. In this context, it is essential for the TI&E Branch—responsible for cultivating military spirit and psychological resilience—to engage in conceptual discussions and strategic reflection to fulfill its mission effectively.

To address this issue, the study first conducts big data analysis by utilizing text mining techniques to classify discussions on cognitive warfare across online portals. It then examines the role of the TI&E Branch within this framework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TI&E Branch's role in cognitive warfare should, externally, support joint operations by countering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malinformation through public affairs activities. Internally, it should enhance soldiers' digital literacy and foster greater discernment and resilience through military spirit educ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its effort to clarify and refine the role of the TI&E Branch within the evolving and fragmented concept of cognitive warfare.

Key Words : Cognitive warfare, Troop Information & Education, Public affairs operations, Military spirit, Digital literacy.

• 논문투고일 : 2025년 7월 27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8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8월 17일